

식탁까지 바꾸는 '코로나19'

신선식품 대신 간편식 등으로 한 끼 먹는 '선반 파먹기' 유행 롯데백 광주점 31일까지 '면역력 상품전' 등 건강식품 매출 ↑

코로나19가 밥상 풍경을 바꿨다.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집에 있는 식료품으로 한 끼를 대체하는 '선반 파먹기'가 유행하고 있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31일까지 지하 1층 건강매장에서 '면역력 상품전'을 열고 건강기능식품을 30~50% 할인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롯데백화점은 뿌리는 프로폴리스 등 항균·항염·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강 효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대거 내놓고 있다.

광주지역 4개 이마트가 1월27일~2월5일 열흘 간 건강기능식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홈삼-인삼은 75.1%, 해조류도 21.3% 매출이 올랐다.

이마트는 최근 유산균 자체 상품(PL)을 내놓으며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소비 경향에 맞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은 개별 포장 상품을 선보이며 바쁜 직장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식품 '사재기' 움직임이 보이면서 집에 남은 재료를 총동원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선반 파먹기'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선반 파먹기'는 '냉장고 파먹기' 유행

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으로 한 끼를 만들어 먹는 알뜰 소비 양상의 하나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 장을 보지 않고 냉장고 속에 방치된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만으로 요리하는 '냉장고 파먹기'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선반 파먹기'로 바뀐 셈이다.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라면, 즉석밥, 간편식 등은 최근 수요가 대폭 늘었다.

농심은 최근 라면 공장의 생산 체제를 기존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전환하고 생산량을 30%가량 늘렸고, CJ제일제당도 지난달 말부터 즉석밥 햇반과 간편식 비비고를 생산하는 공장을 주말에도 가동하며 밀려드는 주문에 맞추고 있다.

이마트24편의점은 이달 말 한 달 먹거리·생활품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과 '덤증정' 행사를 연다.

라면, 즉석밥, 컵밥, 간편죽, 통조림 등 식사에 필요한 먹거리와 휴지, 샴푸·린스, 치약·칫솔, 생리대, 세제, 건전지 등 생활필수품 총 440종에 대해 1+1, 2+1, 덤증정 등 할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먹거리·생활품에 대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기획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고객이 증가하며 식사거리 및 생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3월 행사 상품 140여 종 중 30%가 식사관련 상품 또는 생활품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31일까지 지하 1층 건강매장에서 '면역력 상품전'을 열고 뿌리는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30~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집진기로 식당 직화구이 연기·악취 잡는다

YHB에코, 전기 집진기 출시 지난해 100만불 수출탑 수상도

YHB에코는 4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해결을 위해 집진기 모델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YHB에코는 오일미스트 집진기 세계시장 점유율 5위권을 달성 등 집진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다. 집진기는 오염된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 미립자를 제거하는 장치다.

우선 YHB에코는 금속가공, 반도체, 제약회사 등 공장을 비롯해 철도와 터널,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일미스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산업 분진, 악취 등 각종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미스트크리너, 전기집진기, 악취저감기, 슬러지크리너 등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OT 집진

기, 스마트 집진기 등을 제공해 비용 절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현하고 있다는 게 YHB에코의 설명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직화구이 식당의 연기와 악취 등을 저감하기 위한 요식·외식업 전기집진기를 통해 식당 주변 민원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각 지역별 직영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시일내 납기·사후관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수출도 진행 중이다. 지난 한해 30여개 해외전시회에 출품했으며, 17개국에 수출하는 등 이를 통해 지난해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하늘 YHB에코 부사장은 "지속적인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을 통해 미세먼지 및 각종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신제품 출시와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만족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미세먼지 공습에 바빠진 공기청정기

광주 이마트 매출 45% 급증

매해 봄철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광주지역 공기청정기 매출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달 8~25일 공기청정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매출 역시 17.1%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이마트 평균 공기청정기 매출 증가율이 36.9%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공기청정기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

이마트가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2018년 6회, 2019년 9회 발령되며 미세먼지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관련 '홈케어 가전'으로 꼽히는 의류관리기 매출은 전년에 비해 97.7%, 건조기는 12.9% 증가했다.

이마트는 삼성·LG전자 공기청정기를 행사 카드로 구매하면 6만~13만원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11일까지 행사카드로 사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도 증정한다.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공기청정기는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LG전자가 지난해 7월 반려동물 가정을 겨냥해 출시한 '뱃 모델'을 을 들어 판매된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의 4대 중 1대를 차지했다. '뱃 공기청정기'는 판매량이 꾸준히 늘며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LG 측은 내다봤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지역 소비자들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을 필수가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공기청정기는 방마다 1대씩 두는 추세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반값 참치회 드세요"...이마트, 수출길 막힌 어가 돕기

일본 무역보복 타격으로 수출 부진에 빠진 참치어가를 위해 이마트가 5~11일 역대 최대 물량인 35t 참치회 선보인다.

광주·전남지역 7곳 등 전국 이마트는 이 기간 동안 원양산 모듬 참치회(360g)를 1만4900원에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이마트 참치회(360g) 평균 판

매가격 2만9800원의 절반 가격이다.

이번 할인전에서 내놓는 참치는 총 35t으로, 1년 총 판매량 140t의 4분의 1 물량이다. 모듬 참치회는 고급 어종이라 불리는 눈다랑어의 기름진 부위인 '뱃살'(180g)과 식감이 좋은 '속살'(180g)로 구성됐다. /백희준 기자 bhj@

"봄 맛' 만끽하세요"

봄동·냉이 등 봄나물 판매

봄을 알리는 절기 경칩(5일)을 맞아 식품매장들이 봄동·냉이 등 대표 봄나물로 진열을 바꿨다.

주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1층 식품 매장에서 봄동, 냉이, 달래, 썩 등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가격은 봄동 100g 390원, 냉이 100g 2180원, 달래 1봉 2800원 등이다.

이마트24편의점은 지난 달 말부터 봄나물을 넣은 '비타민채 봄비빔밥'을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24는 4~31일 '봄 시즌 상품' 2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하루e리터(500ml) 또는 천연사이다(250ml)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4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경칩을 하루 앞두고 달래·봄동 등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남원

남원예술

광한루원

춘향제